

세계 최고 화상전문센터 자랑,

이웃과 함께하는 한일병원

심신이 불편한 상태로 병원을 찾게 되는 환자들은 주변 풍경을 감상할 여유를 갖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일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은 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녹지를 보고 있으면 편안함과 함께 질병이 주는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 줄 것처럼 보인다. 질병치료 뿐 아니라 병원을 찾은 환자나 가족, 지역주민들이 도심속에서도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갖기 바라는 바람까지 담은 세심한 배려가 담겨있다. ■취재 유소영





## 국내 최초 화상전문센터 개설

한일병원 하면 '화상전문병원'을 떠올릴 정도로 화상치료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화상환자의 특성상 외과를 주축으로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등 모든 진료과가 협진하여 전인적인 치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설 또한 화상전문 치료탱크, 수(水)치료실, 고압산소치료기, 공기부유침대 등의 전문장비와 각각 격리된 중환자실을 보유하고 있어 입원 초기부터 전문적이며 집중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특히 전기화상에 있어서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병원은 세계적으로도 유일하다고 한다.

최근 신속한 피부 재생을 위해 각종 최신 화상치료제를 사용함으로써 치료시 통증을 줄이고 피부이

식 성공률 100% 달성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이 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전기화상 환자의 치료율이 향상되어 전기화상 환자에게 많을 수밖에 없는 사지절단이 과거에 비해 절반 이하(12.8%)로 줄었다고 병원측은 전했다. 병원의 시작이 전기화상 직원을 위한 치료시설로 한국전력의 기업적 소명 아래 이루어진 만큼 전기화상 치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센터 내에는 진료팀 뿐 아니라 화상환자를 위한 사회사업팀, 물리치료사, 영양사, 원무팀, 의무기록사들이 상근하며 환자 중심의 진료와 치료성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 2003년 지역응급의료센터 서울지역 2위

이웃나라 일본의 의사 도쿠다 도라오(徳田虎雄)는 도쿠슈카이 병원체인을 만들면서 응급의료에 가장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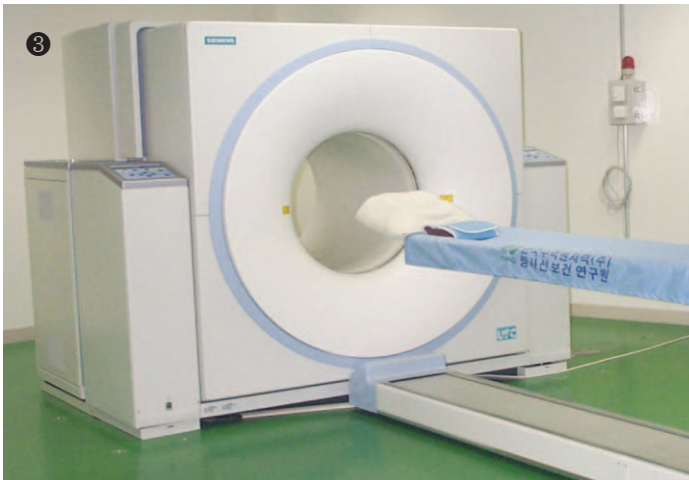
1. 한일병원 수술실
2. 치료중인 의사와 환자
3. PET-CT 촬영



2

역점을 두었다. ‘복지의 기본은 의료에 있고 의료의 기본은 응급의료에 있다’는 생각으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를 소홀히 하면서 제대로 된 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믿음에서였다. 한일병원에서도 이러한 믿음에서 양질의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일병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에서 유수의 병원들을 제치고 서울지역 2위를 차지했다. 도봉구 유일의 종합병원으로 73만여 주민의 응급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응급의료센터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

지난 2000년에 15병상이던 응급의료센터를 30병상으로 확충하고 최신 의료장비와 특수 구급차량도 새로 도입하였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이 교대로 24시간 상주하여 언제든지 신속한 진료를



3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상주시켜 특정 진료과로 환자를 밀어주거나 전원된 환자의 질병이 전문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



없이 오직 환자만을 위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전국 모든 병원에서 호환 가능한 Full PACS 시스템 구축

지난 8월 16일부터 가동된 한일병원의 Full PACS 시스템은 의료영상 데이터 교류를 규정한 국제 의료표준 규격인 'DICOM'을 준수하도록 구축되어, 국제 표준 의료영상기술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외 의료기관과 영상정보 교류 및 호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환자들은 기존 진료기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검사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의료진도 환자 처치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여 좀 더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질병 판독에 필요한 부위를 자유롭게 확대, 조작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진단과 그로 인한 치료율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2003년 3월 PET-CT 도입, 조기암 진단을 제고

최근 대형병원에서 암세포의 조기발견을 위해

관심을 갖고 도입하고 있는 진단장비가 바로 PET-CT이다. 한일병원은 지난해 3월부터 병원내에 위치한 방사선연구원에 PET-CT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암치료에 있어서 조기발견이 힘들어 완치하지 못했던 암세포를 PET-CT 도입 이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어 완치율이 높아졌다. 또한 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는 국내 최초로 PET-CT를 연계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내원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평소 고가의 촬영비로 인해 검진을 주저하던 과목들을 여성, 중장년층 등 특정 단위로 묶어 PET-CT를 포함하여 대상에 필요한 검사들을 연계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어 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 지역 의료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도약, 진료 협력센터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진료 이외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일은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한일병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환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진료협력센터를 개설하여 협력센터를 경유한 환자의 경우 접수 및 수납 절차를 간소


화하고 환자를 의뢰한 병원에 검사결과를 신속히 통보해주는 등 환자와 협력병원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전담간호사가 배치되어 운영되는 진료협력센터는 100% 회신, 치료 후 100% 회송을 목표로 지역 협력 병·의원들과 Win-Win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맺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료협력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협력 병원장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한일병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병원장들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센터 운영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 북한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금호병원 개설

한일병원은 국내 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의료사업을 펼치고 있다. 2002년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현장에 6개 진료과로 구성된 소규모 종합병원인 금호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인근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고립지역으로 금호병원에서는

현지 근로자들의 건강상담 및 질병 진단, 진료, 응급치료, 전염병 예방 및 방역 등 모든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한일병원에서는 현재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 10여명을 파견하고 각종 의료장비 등을 지원해 현지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지역사회 위한 자발적 봉사활동, '이웃과 함께하는 한일병원'

봉사활동은 자발적으로 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한일병원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봉사단체를 조직하여 인근 지역 재활원에서 월 2회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주기적으로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 건강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에 의료진 및 간호사들을 파견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간호부 주관으로 매년 사랑의 아나바다를 열어 그 수익을 불우 노인복지기관에 기부하는 등 한일병원은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1. 일반검진센터
2. 감마카메라
3. 북한 KEDO금호병원
4. 한일병원 주최 바자회



조직에 대한 애정,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은 CEO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 아닐까. 지난 2003년 3월 공채로 원장에 취임한 후 정형외과 과장 재직시절부터 마음에 담은 아둔 병원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끊임없는 열정을 쏟아 부으며 굼직굼직한 병원의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병원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한일병원 나종득 원장. 가을을 예고하는 보슬비가 내리던 늦여름 어느 토요일 오전에 그의 방을 찾았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정형외과 주임과장  
대한정형외과학회 의료평가 윤리위원(現)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자문의(現)



## 나종득 한일병원 원장

### \*진료 우선의 시스템 마련에 역점

취입한 이래 효율적 진료를 위한 병원의 시스템 마련에 매달리고 있다는 나 원장의 말대로 병원 이곳 저곳에서는 그러한 노력의 증거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병원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한 사람의 역량에 의지하기 보다는 시스템에 의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나 원장은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보아왔던 병원의 문제점이 '시스템의 미비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남은 재임기간동안 진료 최우선의 병원시스템을 바로 세우는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한다.

“뛰어난 한 사람의 역량에 기대를 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CEO 한 사람이 없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모든 일상이 진행되는, 시스템이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환자가 내원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가 재직하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입 첫해부터 진료부 조직을 재정비한 것도 좀 더 긴밀한 협력체계 속에서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작년에는 진료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총 25억여원을 투자하여 디지털감산심혈관촬영기(DSA)와 Dual Head Gamma Camera 등 최첨단 장비를 도입했다. 올해 8월에는 20여억원을 들여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최초로 Full PACS 시스템을 구축했다. 병원경영이 어렵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때에 하나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들을 차례대로 수행하게 된 배경을 묻자 나 원장은 웃으며 대답했다.

“CEO는 눈앞의 이익이나 당장의 손실에 집착해서는 안됩니다. 이왕 해야 할 사업이라면 시기가 어렵더라도 추진하는 편이 낫지요. 저는 한일병원이 100년이 지난 후에도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서있길 바랍니다. 지금의 투자가 병원의 100년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 병동 간호부  
2. QI 교육  
3. 수술실

### \*직원간 인화 증시, 함께하는 노사관계

지난 6월 대부분의 대형병원에서 산별교섭의 거듭된 파행으로 사상 초유의 대규모 병원파업 사태가 빚어지며 노사가 극한의 대립상황으로까지 치달았는데 반해 노사분규없이 임·단협 타결을 이끌어낸 비결에 대해 묻자 의외로 간단한 대답을 들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하듯 노사관계에서도 한 가지 원칙만 지켜진다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없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신뢰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무언가를 숨기는 순간부터 노사 양측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그 결과가 노사분규로 이어진다는 지론이다. 나 원장은 이러한 신념 아래 병원의 경영성과를 비롯한 모든 경영지표 자료를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 공유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조장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 공유를 통해 직원들이 병원경영에 관심을 갖고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질 수 있는 장점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노사합의에서도 노조측이 병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병원측도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7월부터 주40시간제는 시행하되 토요일 오전 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현재 시행중이라고 했다.

나 원장은 다른 병원들도 노조와 경영진이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모두가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환자를 위한 병원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면 좀 더 바람직한 병원 노사문화가 마련될 것이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 \*의료의 질 향상, 병원감염 0%를 목표로 - QI실 신설

나 원장은 부담한지 5개월만에 QI실을 신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내 감염을 줄이기 위한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 QI실을 신설하고 10월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QI 방법론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4주간 실시했다.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업무개선 및 고객만족을 위한 부서별 QI 활동을 전개했다. 병원감염을 줄이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무균조제실도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올 4월에 QI실이 신설된 이후 8개월 동안의 QI 활동 결과물을 모아 제1회 QI 사례 발표회를 열어 그간의 성과를 직원 모두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희 병원이 사실 QI 활동에 있어서는 다른 병원들에 비해 늦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늦게 출발한 만큼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QI 활동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업을 택한 순간의 송고한 봉사정신을 늘 가슴에 담길 - 전공의들에게**

어느 의사에게나 그렇듯 나 원장에게도 전공의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의 힘들었던 기억에서인지 전공의들에 대한 그의 애정은 각별했다. 현재 한일 병원에는 인턴 24명을 포함한 전공의 76명이 수련을 받고 있다고 전하며 숙식은 해결해 주고 있지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하는 점이 늘 아쉽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전공의 노조 설립에 관한 의견을 들어 봤다.

“전공의들의 노조설립이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노조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문제겠지요. 의사는 어떤 경우라도 환자를 떠나서는 안됩니다. 전공의들에게 의업을 택했던 순간에 가졌던 송고한 봉사정신을 항상 가슴에 담아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실에서 걱정할 타협선을 찾는 방향의 활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타협하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사회주의적 의료보다 Win-Win할 수 있는 의료체계 마련 기대**

병원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번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바라는 점이 있는지 물었다.

“이제까지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의료를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접근했던 국가들은 대부분 의료인력의 질이 약화되고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실패를 눈여겨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의료계 환경은 의약분업, 주40시간 근무제 등 주요 정책이 시행될 때 병원계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 수많은 중소병원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대형병원마저도 경영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이 돈벌이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위협받는 것은 환자의 생명입니다. 병원이 환자에게 걱정할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때 의료도 발전하고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수준도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병원과 국민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의료체계 마련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임기간이 다할 때까지 효율적인 진료를 위한 병원의 시스템 마련에 온 정성을 기울이겠다는 나 원장. 10년 후 그가 마련한 시스템 아래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선 한일병원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